



전남문화재단 창작뮤지컬 '헤어 드레서' 25일 남도소리울림터

조선 첫 미용사 오엽주, 뮤지컬로 환생

개화기 조선 최초 백화점에 미용실 연 여성 '헤어 디자이너' 1호 시대보다 앞섰던 근대 여성의 성공 이야기 '헤어쇼' 형식 풀어내

1933년 3월, 서울 종로의 화신백화점 2층. 유리창 너머로 드라이어 소리가 흘러나오고, 파마 약 냄새가 공기를 감싼다. '화신미용원'. 그곳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단아한 한복에 쪽진 머리가 일반적이던 시절, 굽 높은 구두에 최신 양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여인이 고객의 머리칼을 말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오엽주. 조선에서 처음으로 백화점 안에 미용실을 연 여성이자, 근대적 의미의 '헤어 디자이너' 1호였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태어난 그는 원래 영화배우를 꿈꿨으나 일본 유학길에서 미용 기술을 배우며 인생의 방향을 틀었다. 귀국 후 화신백화점에 미용실을 열어 파마, 화장, 매니큐어 등 서양식 미용법을 선보였다.

당시는 '머리를 묶는' 행위가 금기처럼 여겨졌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그녀의 미용실에는 매일 부유층 여성들이 줄을 섰다. 파마 한 번에 쌀 한가마니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쌌지만, 오엽주의 손길은 '못난이도 미녀로 만들어준다'는 입소문을 탔다.

시대보다 앞서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무대 위로 소환된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창작뮤지컬 '헤어 드레서'를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2025 공연예술 유통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이엘플러스가 제작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다.

'헤어 드레서'는 개화기 최초의 헤어 디자이너로

알려진 오엽주를 오마주한 작품이다. 동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꿈과 용기, 그리고 여성의 자립을 유쾌하고도 섬세하게 그린다.

주인공 '마레'는 남들과 다른 미적 감각으로 늘 눈총을 받는다. 단발머리와 직접 만든 드레스로 세상의 시선을 한몸에 받지만 그 자유로움은 곧 갈등을 부른다.

질투와 오해 속에서 마레는 이탈리아 유학길에 올라 미용 기술을 배우고 귀국 후 백화점 안에 미용실을 연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새로운 스타일은 곧 도시의 유행이 되고, 미용실은 '못난이도 미녀로 만든다'는 소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며 비밀리에 군자금을 전달하던 마레의 미용실은 이내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사랑과 신념, 질투와 희생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선의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2022년 초연 이후 전국 무대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이 작품은 '헤어쇼'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의 창작뮤지컬이다. 무대 위에서 재현되는 헤어쇼 장면은 조명과 음악, 안무가 어우러져 관객에게 생동감 있는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다양한 헤어스타일과 의상, 세밀한 조명 연출은 개화기의 화려함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구현하며 관



소녀(왼쪽)와 조정민

객이 새로운 시대의 미학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듯한 경험을 만든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소녀가 주인공 '마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마레와 갈등을 빚는 인물 '예화' 역은 트로트 가수 조정민이 맡아 각기 다른 매력으로 무대를 채운다.

김은영 재단 대표이사는 "뮤지컬 '헤어 드레서'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으로 특별한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지역 문화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生과 死 경계를 잇는 '진도의 소리'

국립남도국악원, 25일 기획공연 '진도 삼례 시리즈 3'



채정례 명인이 생전 씻김굿을 하는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고(故) 채정례(1925~2013) 명인은 신안 하의도에서 태어나 세습무 가문의 넷째 딸로 자랐다. 서른셋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 굿을 연행했지만 평생 지역민의 안녕과 위로를 받으며 굿의 본래 정신을 지켜온 당골로 기억된다. 화려함 대신 진심으로 울림을 전한 그의 소리는 '진정성의 미학'으로 평가받는다.

진도의 바람과 바다, 그리고 굿판의 숨결 속에서 삶과 죽음을 아우르던 한 여인의 소리가 다시 무대 위로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진도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진도 삼례(三禮) 시리즈 3-채정례를 기억하다'를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진도씻김굿의 명인 채정례를 기리는 자리로 '조공례를 부르다', '김대례를 잇다'에 이은 마지막 순서다.

이번 공연에서는 '채정례는 진도씻김굿'이 무대에 오른다. 서남해안 일대에서 전승되는 대표 넷굿인 씻김굿은 망자를 위로하고 산 자의 안녕을 기

원하는 의례로 초가망석과 길닦음, 축원, 씻김, 종천에 이르는 굿의 흐름이 재현된다. 관객들은 생과 사의 경계를 잇는 소리의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무대에는 채정례의 제자이자 국악계 대표 소리꾼인 채수정이 함께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이자 (사)세계판소리협회 이사장인 그는 제19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과 KBS 국악대상 판소리상을 수상한 명창이다. 이번 공연에서 사회를 맡고 일부 굿 절차를 직접 연행하며 스승의 소리를 다시 잇는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도 함께해 굿의 장단과 선율로 진도의 정서를 되살릴 예정이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국악원은 2006년부터 채정례와 함인천 부부의 씻김굿을 무대화하며 대표 레퍼토리로 이어오고 있다"며 "삶의 고통을 굿의 언어로 승화시켜 사람들을 위로한 예인 채정례 선생의 발자취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상에 대한 '호기심'과 '공감'

광주 출신 김류 동화작가, 동시집 '오늘도 비는 쉬지 않았다' 펴내

광주 출신 김류 동화작가가 동시집 '오늘도 비는 쉬지 않았다' (상상)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은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공감의 태도와 연계된다는 주제를 담고 있다. 누군가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슬픔을 다독여 주는 배려의 마음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다.

김 작가는 "헬렌 켈러는 앞을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지만 훌륭한 작가이자 사회 운동가로 활동했다"며 "자신의 약점이나 장래를 이겨내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고 작품집을 펴내게 된 배경을 전했다.

"개는 억울하다.// 누가 지나가는 것맞는데/ 주인은 짓지 말란다.//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란다.// 그렇게 짓어대면/ 아파트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온단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쳐다만봐요? 그건 개도 아니에요.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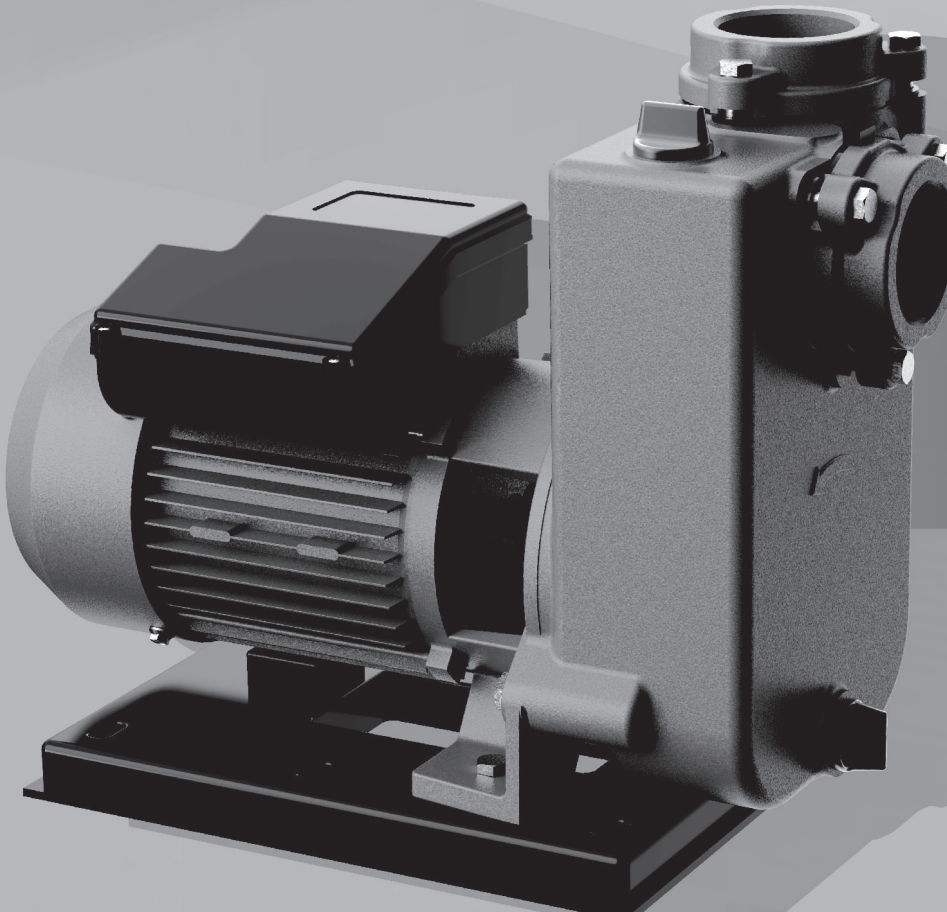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아파트에 사는 개'라는 동시는 개의 관점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개는 반려동물로 인식된다. 사람과 함께 거주하지만 야성이라는 본성은 남아 있기 마련이다. 작품 속 아파트에 사는

개는 낯선 이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민원이 들어온다며 짓지 말도록 강요당한다. 화자는 '억울한 개', '슬픈 개'가 바로 '아파트에 사는 개'라고 속삭인다. 이밖에 책에는 '딱따구리는 나무를 파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등 호기심을 가질 만한 소재로 형상화한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김류 동화작가는 지난 2017년 '어린이와 문학'에 동시가, 2024년 '시와 동화'에 동화가 각각 추천돼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